

대형마트·SSM 월 2회 자율휴무

12일부터 1216곳 둘째·넷째 수요일 광주·목포·순천·화순·무안 등 제외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자율 휴무한다. 하지만 광주·목포·순천·화순·무안 등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제외된다. 3일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회원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스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SSM은 오는 12일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자율 휴무를 실시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 1차 회의에서 합의한 일정(12월 넷째주부터)보다 2주 가량 빠르다. 12일부터 자율 휴무에 들어가는 점포는 대형마트 284개, SSM 932개 등

총 1216개다. 현재 지자체가 영업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 해당된다. 이는 전체 점포의 약 80% 수준이다. 전남의 경우 나주(대형마트 1곳), 광양(/ 1곳·SSM 2곳), 곡성·고흥·화순·영암(SSM 1곳씩)지역에서 수요일 자율 휴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당초 12월 넷째주부터 휴무를 하기로 했지만 상생협력을 하루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실시일을 계획보다 앞당겼다”고 말했다. 앞서, 지식경제부와 대·중·소 유통단체, 유통업체가 참여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1차 회의에서 월 2회 휴무

실시 이외에도 대형마트와 SSM의 중소도시 출점 자체, 소평센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 휴업, 유통상생발전기금 설치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대형마트, SSM은 오는 27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추가 상생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형마트의 휴무를 월 2회에서 월 3회까지 확대하는 한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광주은행 '금융대상'

승기진 광주은행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3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금융대상'에서 은행부문 대상을 수상한 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지역 상장사 부채 크게 줄었다

13개사 3분기 부채율 전년비 144%P↓ 매출 5%↑

올들어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3개 사의 '2012사업연도 3분기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들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5조 74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

4434억원)보다 5.4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6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22억원)보다 4.54% 늘었다. 대유신소재와 로케트전기, 디에스알 제강 등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KPX화인케미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업 적자를 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등 지급에 따라 -1323억원을 기록, 적자 전환

됐다. 대상 기업 13개사 가운데 7개사가 순이익 흑자를 냈고, 6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상장법인의 부채비율은 192.06%로, 지난해 같은 기간(336.27%)보다 144.21%포인트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부채비율이 지난해 382.03%에서 올해 242.35%로 139.68%포인트 줄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금감원 광주지원 홈페이지 개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은 3일 지역 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기 위해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광주지원은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본인 홈페이지에 집중되던 정보를 지원 홈페이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광주지원 홈페이지는 금융민원, 금융교육, 업무자료 등 5개 메뉴로 구성되며 각 메뉴별 26개 콘텐츠를 제공한다. 금감원 광주지원 홈페이지 주소는 <http://gwangju.fss.or.kr>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20일부터 통관정보 무료제공

관세청은 오는 20일부터 수출입화물 통관진행정보, 수출이행 내역 등 통관정보를 무역업체, 관세사 등에 무료로 제공한다.

이들 통관정보는 그동안 중계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 수수료를 주고 확인할 수 있었다. 통관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서 볼 수 있다. 수출입업체, 개인은 인증 절차를 거쳐 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관세청 정보기획과 오필석 사무관은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무료로 직접 제공함으로써 무역업체의 비용 부담 경감과 서비스의 개발·변경 신속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 문의하면 된다.

물가 체감, 달라도 너~무 달라

11월 소비자 지수 1%대 하락 불구 배추·난방비 고공행진

11월 소비자물가가 1%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장철인 최근 배추 가격이 2배 가까이 뛰고 무, 파 값도 크게 올랐다. 올 겨울은 더욱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난방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6(2010년=100)으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6월 이후 1% 상승률에 그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채소류가 전년보다 22.8%나 급등하면서 신선식품지수도 같은 기간 10.4%나 올랐다. 특히 김장 관련 채소류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배추가 126.2%, 파가 104.1%나 급등했으며 배(50.5%), 생강(36.3%), 브로콜리(41.9%), 양상추(41.2%), 풋고추(34.7%) 등 과실·실채소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청바지(14.6%), 운동복(13.6%), 잠갑(12.3%) 의류를 비롯해 보일러수리비(22.4%), 전세(7.6%) 등 주택·수도·전기·연료 부분의 상승폭도 컸다. 반면 돼지고기(-15.4%), 달걀(-6.0%), 닭고기(-2.7%) 등은 하락했다. 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로 전월대비 0.4%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5% 상승했다. 전남도 신선채소가 23.2%, 신선과실 9.4%가 오르는 등 신선식품지수가 전년동월대비 11.0%나 올랐다. 전남도 파(69.9%), 무(67.3%), 배



추(65.2%) 등 김장채소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학생복(남 26.1%·여 27.2%)을 비롯해 초등학교 학원비(11.4%), 미술학원비(7.8%) 등 교육관련 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씨티은행 199명 희망퇴직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이 최근 악화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임직원 199명을 희망퇴직시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를 거쳐 이런 조치를 했다.

씨티은행의 전체 임직원은 4600여 명이다. 이 은행은 경기 불황의 장기화에 대비해 이번 구조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국내 금융 환경이 좋지 않아 희망퇴직을 단행했

다”면서 “앞으로 경영 효율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퇴직자는 근속 15년 이상일 때 평균 36개월치 월급을 특별 위로금을 받는다. 학자금은 최대 2명까지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한다. 같은 외국계은행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지난해 연말 전체 직원의 12%에 달하는 800여명을 명예퇴직시킨 바 있다. 올해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체크카드 수수료를 외국의 7배

평균 1.5~1.9%...부가서비스 많은 신용카드 수준

국내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가 거의 없는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은 외국보다 최대 7배까지 높아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등 대형 카드사의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의 경우 1.0%이지만 일반가맹점은 1.5~1.9%다.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평균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

으나 체크카드는 요지부동이다. 최근 카드산업 추세가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을 카드사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체 카드 시장에서 체크카드 이용 비중은 올 상반기에 14.52%로 전년 동기 대비 1.67% 포인트 증가했다. 현재 체크카드만 3000만장 이상 발급되고 금융 당국도 부채 부담이 적은 체크카드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KB국민카드를 기준으로 하면 체크카드 일반가맹점의 중간 수수료율은 유통 판매가 1.9%에 달한다. 유통업은 1.75%이고 숙박, 여행, 백화점, 노래방, 편의점, 의료, 서점, 국산 신



차, 금융보험, 의료기관, 화장품, 유흥 및 사치업 등은 1.7%다. 골프장, 주유소, 종합병원 등 1.5%로 정해졌다. 이런 수수료율은 신한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도 비슷하다. 미국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7%, 캐나다는 0.2% 수준이다. 우리나라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이들 국가보다 2~7배 비싸다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

녹색의 땅 전남
Green Jeonnam

우리 집만의 “행복한 특권”

다자녀 행복 카드

3명 이상 자녀 가정을 위한

전라남도에서 양육비 경감을 위해 드리는 문화·경제적 할인 혜택

<http://jnhappy.bccard.com>
BC카드 ☎1588-4000 · 농협 ☎1588-6000
☎061-286-5741

- 연회비 평생 면제 및 GS칼텍스 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80원 TOP포인트 적립
- CGV, 롯데시네마, 프리머스 현장 구매시 건당 1,500원 할인(월 2회, 연 12회)
- 농협하나로마트 등 판매장 이용 시 5% 할인(월 2회, 1회 최대 5,000원 할인)
- 유치원, 예체능 학원 등 학원업종 이용 시 10% 할인(월 2회, 1회 최대 1만원)

전라남도
JeollaNamdo